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월호
Feb. 2010

◇한인회장 신년인사◇

2010년 경인년 한인회장 김두남 인사 올립니다. 예년에 없던 많은 눈과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한해에도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과 봉사의 손길로 인하여 잘 운영되어 온 것에 모든 교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임기 2년차가 시작되는 새해에도 더 발전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교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인회의 부설인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사랑" 캠페인과 함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15주 등록금을 \$150에서 \$100로 내렸으며, 전옥미 교장 외 6분의 교사들이 앞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어버이회 모임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결혼하신 분은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강제성은 없었지만 회비제도 부담을 드리지 않고자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 외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월요일 성경공부(매주 10시-12시)와 UNM 한국학생모임 등 교민들이 한인 회관을 사용하기 원하시면 언제나 개방해서 교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에 거주 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이 뉴멕시코 주 한인회의 주인이십니다. 자주 들려 주시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사업계획}

1. 한인록(업소록)발행 - 2월부터 작업 예정
2. 한인야유회 - 5월 예정
(6.25참전용사초청-60년기념)
Asian Festival (Civic plaza) - 5월 16일(일)
3. 추석맞이 김치축제 - 9월 25일 예정
4. 불우이웃돕기 송년의 밤 - 12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 것은 2010년 4월 1일 인구조사(매 10년) Census에 모든 교민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인회장 김두남 드림

[한인회 소식]

1. 지난 1/9 정종연 한인회 이사장님의 후원으로 한인회 임원 및 봉사자님들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2. 지난 1월 15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최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협의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김두남 회장[사진]



[어버이회 소식]

1. 지난 12월 18일 한국에서 방문하신 김영신 미화부장님의 친정어머님께서 어버이회원님들을 점심식사에 초청해주셔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 2010년 1월 7일 A-1 Market에서 신정을 맞아 떡국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2010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구정을 지내는 달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맛있는 떡국과 재미있는 윷놀이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유의 명절 구정과 발렌타인 데이를 보낸다면 뜻 깊지 않을까요?

2010 Spring Semester has begun. This month offers a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by celebrating the Lunar New Year Day (Feb. 14). Sharing a delicious bowl of "dduk-goog" and playing a round of "yoot-nori"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would make a very memorable Valentine's Day.

봄방학 미술캠프 (유치원 - 8학년)

Spring Break Art Camp (K - 8th) NEW!

기간 Dates: 2010.03.15 - 2010.03.19

시간 Time: 09:00 - 12:00

수업료Tuition: \$100 + 재료비 materials fee

봄방학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3월 5일까지 등록해주시십시오.

Open to all students. Please register by March 5th to guarantee a spot.

한글수업 안내

Korean Class Information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 캠페인 - 수업료 \$100

2010 "Love for Korean" Campaign - Tuition \$100

2월에도 등록 받습니다.

You may still register in February.

청소년/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Wednesdays, 6 - 8 PM

청소년/성인반은 생활 회화 위주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Youth/Adult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ith emphasis on conversational Korean.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한글과 한국문화/역사를 배웁니다.

The Saturday children's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with emphasis o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history. (A minimum of four students are required to form a special class taught in English.)

미술반(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지도교사Instructor: 이시영 선생님, Mr. Siyoung Lee (MFA, U. Penn.; MA-Art Education, UNM)

미술반은 특별활동반으로 수업료 (재료비 포함) \$50 추가로 받습니다.

The optional art classes are offered at the additional tuition (including materials fees) of \$50.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 을 눌러 주세요)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연락처 /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2010년 인구조사, 올바르게 압시다.

2010 센서스, 즉 인구조사는 미국 인구를 공식적으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제1조, 제2항 공시)은 미국 하원 의석수 435석을 인구수로 각 주에 분배하기 위해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인구조사 뒤 인구 증가가 확인됐지만 소수가 모자라 뉴멕시코 주는 연방하원 의석수가 3명에서 고정되었습니다. 의석수가 늘면 그만큼 정치력도 신장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The Electoral College)도 늘어납니다. 미국은 인구조사를 1790년부터 매 10년, 그러니까 년도가 0(영)으로 끝나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구획 데이터를 공무원들에게 비당파적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인구조사 재구획 데이터 제출 마감일은 2011년 4월 1일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주거지 장소에서 한 번, 오직 한 번만 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조사는 여러분 지역사회가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면에서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연방정부에서는 4,300억불(430 Billion Dollars)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시키는데 센서스에 근거한 정보로 각주와 도시 및 여러 기관과 단체로 이 돈이 나누어져 보내집니다. 뉴멕시코에서는 매년 1인당 약 \$400 정도가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를 위해, 사회 복지비로, 노약자와 퇴직인 건강보험료로, 직업 교육비, 도로 건축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만약 이런 인구조사에 1명이 누락이 되면 십년 후 돌아올 인구조사 때까지 \$4,000 정도가 지역사회에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지역사회를 위해 \$4,000 보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들이 합당한 보험비용과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해 인구조사는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중요한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인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거주자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외국 공관원, 장기 체류자등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간혹, 미국에 유학 오신 분들이나 또는 어떤 연유로 체류신분이 확실치 않은

자랑스러운 파트너

United StatesTM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2010census.gov

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아버이회 소식 ▷p.1
한국학교 소식 ▷p.2
2010년 인구조사, 올바르게 압시다 ▷p.3
매일 10분, 테크노스트레스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p.4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p.5
여섯 단어 자서전 ▷p.6
알버커키와 시인 황갑주 (I) ▷p.7
재림하시는 주님 ▷p.9
꽃으로 그린 수목화, 동양 꽃꽂이 ▷p.12
2010년 뉴멕시코 목회자 정기모임 ▷p.13
세탁물 건조기 사용시 절약법 ▷p.15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살림의 지혜 ▷p.16
우리집 설날 별미 ▷p.16
뉴멕시코 한인 업소 ▷p.18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시는 분들이 자신은 인구조사에 대상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바 모든 거주자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면 Sales Tax를 내시고 아파트에 살면 렌트비에 재산세가 포함되어있고 하다못해 전화사용료에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세금은 인구조사 정보를 통해 교육비, 의료 진료비, 공사비 등 여러모로 지역 사회로 다시 환원되어 집니다.

모든 거주자가 해야 할 인구조사는 중요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전 제13편은 여러분의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3편은 인구조사국이 응답자의 답변을 절대 비밀로 유지 하고 개인 또는 세대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는 도표를 위해서만 설문지 답변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설문지의 답변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나 타인과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다른 누구의 설문지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구 조사국 직원은 설문지에 개인정보를 다른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하도록 선서를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길시 징역 5년과 25만불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신분이 확실치 않아서 인구조사에 참여치 않으시려 하신다면 절대로 신분 노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조사 설문지는 체류 신분을 묻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정보는 절대 보장 합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 참여치 않을 경우,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인구조사국 직원의 방문을 받습니다. 오히려 인구조사에 참여해 설문지를 빨리 보내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센서스 참여는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2010년 인구조사는 1790년 미국 최초의 인구조사 이래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인구조사 설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는 이름, 연령/생년월일, 관계, 성별, 인종, 히스패닉계 및 가끔 다른 곳에서 살거나 체재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여러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각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과 세대 일반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구조사 양식은 작성하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한국분들을 위해 한국어 설명서와 한국어 설문지를 가까운 지정된 장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를 위한 인구조사일은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구조사국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3월 중순에 각 주소지로 발송할 것입니다. 받은 인구조사 설문지를 가능한 빨리 작성하고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표 필요 없음) 부칩니다. 4월 1일은 양식을 발송해야 하는 마감일이 아니므로, 4월 1일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속히 여러분의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십시오. 4월 9일까지 여러분이 작성한

양식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인구조사 요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 이 센서스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쉬우며, 안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승우, 미국 상무성 인구조사국 중서부 덴버사무소 아시아 협력 담당관
(Peter Lee, Partnership Specialist, Dep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Denver Regional office)

[건강상식]

매일 10분 테크노스트레스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감정이 없는 기계와 익숙해지면서 당신도
웃음이나 울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요즈음처럼 도시화, 기계화 된 것은 고작 50-60년으로, 우리 몸은 인류 역사 500만 년 거의 대부분을 자연 환경에 맞게, 자연과 더불어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자연과 접하는 순간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 산림총합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숲에 들어가서 40분 간 2000-2500 보의 운동을 시킨 군과 인공 기후실에서 온도, 습도를 같은 조건으로 맞추어 비슷한 정도 운동을 하게 했을 때, 자연의 품에서 운동을 한 군에서 긴장, 불안, 피로 등의 부정적인 감정척도가 더 감소하고 주관적인 활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타액 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떨어졌고, 혈액 중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연살해 세포와 면역세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품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진 우리 몸이, 요즈음처럼 잘 때 이외에는 거의 컴퓨터, 휴대폰, 텔레비전 등 감정이 없는 기계와 함께 하는 환경에 둘러 있으니, 우리 몸의 유전자는 적응하기도 벅잡니다.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대하니 눈에 피로를 느끼고, 컴퓨터 작동을 하면서 조바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인간 두뇌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어,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가중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클릭만 하면 1-2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익숙해 점점 조급해지고 느린 것은 참기 어려워지게 되는거지요.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감정이 없는 기계와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감정이 점점 메말라져 우리 자신도 웃음이나 울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닐

가요? 우리들이 친구로 삼고 있는 기계들처럼 우리 자신도 세상에 좋고, 나쁘고의 단순한 감정만 존재하고, 섬세하고 다채로운 느낌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가가 날 때마다 숲이나 산, 강 등 자연을 찾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치료법이겠지만, 바쁜 일상에서 자주 하기는 어렵지요. 따라서 가급적 일상에서라도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는 현대인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는 심장도 마구 뛰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호흡도 가빠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듯이 심장을 덜 뛰게 하거나 소화가 잘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호흡입니다. 길게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이완을 가져오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늦추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컴퓨터와 휴대폰, 텔레비전을 모두 끄고 눈을 감고, “시냇물 소리” “새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쁜 우리 일상에 긴장을 늦추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나뭇잎이나 나무의 향과 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소식

아는 것(이성)과 믿는 것(계시)의 차이

김기천 목사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86년 여름이었다. 당시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대략 5년을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중에 하나 특이한 경험을 통하여 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날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처음 듣는 중년 여인(당시 만난 감리교회, 송재복 성도)의 목소리였다. 전화 속에 상대는 당장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들려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다. 당연히 수락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꿈고 나자 교인 중에 한 분이 전화한 사람은 자신과 인척관계라고 밝히면서 전화하게 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설명해주었다. 전화한 사람은 본래 절에 다니던 불교인이었다. 교회는 가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집에는 건장한 남편과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런데 건장한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하수 없이 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다.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병원을 찾아가 보았다. 진찰한 의사들은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며 돌려보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다니는 절을 찾아가었다. 그리고 절에서 써준 부적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 놓았다. 부적을 붙여놓으면 다리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지만 했다. 본인이 식당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굶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친척 관계인 우리 교회 교인이 교회 나가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귀뜸해 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내가 직접 받았던 것이다.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교인들 대어섯 명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가다. 컴컴한 논 길 사이로 그 집을 찾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집 안에 붉은 글씨로 쓴 부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속장님께 부적들을 찾아서 태우라고 지시했다. 속장님은 부적들을 모두 찾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워버렸다. 그리고 교인들과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끝에는 그 부인의 다리를 잡고 기도를 드렸다. 특별한 변화가 없이 가정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어제 심방했던 집에서 온 전화였다. 매우 흥분한 목소리였다.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다리를 완전히 고쳐주었다는 것이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이 부인은 꿈에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전화를 통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는 주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다.

길게 설명한 위에 내용은 사실 다음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서두에 불과하다. 새 가족들이 오기로 한 그 주일 바로 전 날인 토요일에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그 집 방 안에 있는데 그 집 장롱에 귀신이 들어 있다면서 나 혼자 그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꿈이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 그 꿈이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 혼자 생각하기를 지난 수요일 그 집에 있는 부적들을 태울 때 아마 장롱에 있는 것은 찾아내지 못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하며 나름대로 꿈해몽을 해보았다. 다음 날 주일 예배에 약속대로 온 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왔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난 밤 꿈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부인을 불러서 지난 밤 내 꿈을 설명하면서 혹시 장롱에 부적을 두었냐고 물어보았다.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은 장롱에 부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여간 나는 꿈이 하도 이상해서 혹 집에 가면 장롱을 다시 뒤져보라고 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에 오면 결과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저녁 예배에 부인이 나왔다. 그 부인은 집에서 장롱을 뒤져 보았는데 부적은 없고 불교의 경전인 불경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불경을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집 장롱에 있던 불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는 불경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과 선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다. 학문적 관심 때문에 우리 집 책장 안에는 불교 경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불경은 문제가 안 되고 왜 그 부인의 집에 있는 불경은 문제가 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지식과 믿음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부인은 믿음을 가지고 불경을 대한 것이고 나는 지식을 가지고 불경을 대한 것이다. 경전을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는 그 경전에서 종교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만 경전을 학문적 지식으로 대할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종교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종교의 본질은 지식 즉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신앙에 있는 것이다.

이후로 나는 학문과 신앙을 구분시켰다. 지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학문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접근했다. 보수 신학자들의 글,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글, 자유 신학자들의 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과학에도 관심을 두었다. 물론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들도 읽었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도 관심을 두었다. 불교와 같은 타종교에도 관심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인도종교의 기원에 관한 과목을 듣기도 했다. 열려진 자세로 모든 학문을 대했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학문을 접한다고 내 삶이 흔들리거나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것은 확고한 믿음 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나의 삶과 정체성을 말해주는 기반인 것이다. 나는 천지창조, 재림, 부활, 심판, 천국 등과 같은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믿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다. 나의 인생은 기독교의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현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다.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한번은 친구가 철학이나 신학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위에 학문과 신앙을 조직신학에서는 "이성과 계시"라는 이름으로 논한다. 과학과 종교, 학문과 신앙, 이성과 계시, 지식과 믿음 등은 모두 알고 보면 "머리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믿을 것이냐?"란 질문의 다른 말들이다.

[에세이]

여섯 단어 자서전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래리 스미스는 컴퓨터 통신망에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거기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의 일한가지를 떠올렸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이며 단편 작가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어느 날 단편소설을 여섯 단어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재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온 그의 손에 쪽지 한 장이 들려있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번역해보면, "팔 물건: 애기 신발, 꿴보지도 않았음." 이다.

그 단편소설이 아주 재미있었다고 생각한 스미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와 비슷하게 "당신의 삶을 여섯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다. 예상밖에 수만 명이 거기에 응답했다. 다른 편집인 하나와 함께 그 중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가려내어 2008년에 "이건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 여섯 단어 자서전"이라는 이름의 책을 만들어냈다. 그 많은 인생 이야기 중에서 저자들이 으뜸으로 꼽아 미국의 은퇴자협회지에 소개한 것은 "Nearing 60, still on rough draft." 로 "60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대충 그려둔 밑그림." 이라는 정말 짧은 여섯 단어로 쓴 단편소설이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의 6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삶의 참 뜻을 터득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간의 삶은 저마다 달라서 살면서 겪는 일도 가지각색이다. 불가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달라지는지라 파로나 '자신' 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존재의 시작인 탄생부터가 예외 없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 다 보니 어떤 운명이, 어떤 섭리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던져 무거운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 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 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짐을 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낼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사람은 순전히 타의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며, 보고 느낀 대로 표현하는 순수한 마음의 어린 시절을 보낸다. 이어지는 소년기에는 신체의 발달과 함께 성적 기능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이나 갈등 때문에 자아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흔히 정신적 동요를 겪는다.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른들이 보기에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수도 있다.

청년기에도 신체와 정신은 왕성하게 발달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동요기를 거쳐 자아의식이 확립되는 시기다. 혈기가 왕성하지만 아직 안정되지 못한 때이므로 청년기에는 자칫 품행이 흐트러지기 쉽다. 철학자들은 청년기를 삶의 어느 때보다 철학에 가까운 시기라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많이 고민하면서도 알 수는 없어서, 철학은 멀리 있고 지식은 외워서 채우는 시기라는 말일 터이다.

학문이나 삶에서 얻은 견식이 일가를 이루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시기가 그 다음에 오는 장년기다. 인생의 전반이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라면 후반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기간이라 할 수 있다. 장년에는 흔히 사회에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가정생활에도 틀이 잡혀서 품위 있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했던 욕망을 버리지 못해 그대로 간직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중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내적 정취나 희열을 성취하는 나이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정상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흔히 인간의 삶이 이 시기부터의 행적에 따라 평가된다. 이 시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연습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며 걷는 여행임을 깨달아 삶의 속도를 줄이고, 삶에서 값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그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전신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감퇴해져서 조그마한 외부의 자극에도 병들기 쉽다. 게다가 정신까지도 쇠약해져 고독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도 한다. 고독은 신체의 질병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병이 되는 수도 있다.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지 않고 노년을 보내려면 곱게 늙어야 하며, 곱게 늙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신적인 변화를 똑바로 알아차려야 하는데도 잔소리하고, 자랑하고,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님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욕심을 버리지도 못한 채 사는 노인들도 많다.

사람마다 한 세상 잠시 다녀가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그래서 삶은 신비이면서 경이이다. 우리는 그런 맛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간다. 수많은 선인들이 제각각

경험한 삶을 여러 가지 사물에 비교한 것을 본다. 철학자를 비롯해서 성인, 작가, 의사, 경제학자, 아메리칸 인디언 등이 살면서 느낀 "인생은 여행이다." 라는 은유가, 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다. 인간은 천체의 운행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 중에 지구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나그네라는 것이다. 그 덧없는 흐름을 든든한 길잡이도 없이 그저 따라 흘러가는 것이 삶이라는 말이다. "같은 강물에서 두 번 목욕할 수는 없다." 는 서양속담도 있고, 인생의 달인 공자는 시냇가에서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남겼다 (논어, 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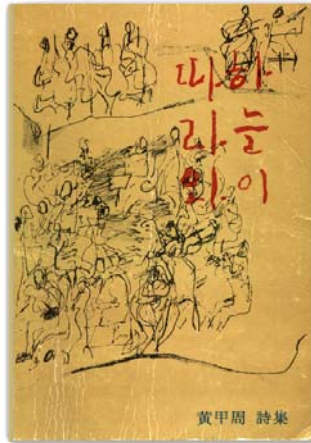
육십이 다된 나이인데 자기 인생은 아직도 대충 그려둔 밑그림이라는 앞서의 여섯 단어 단편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일 성싶다. 그래서 그토록 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을 것이다. 지나간 세월의 허구한 날들을 되돌아보게 했을 것이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몇 날 며칠을 놓아주지 않고 나를 씨름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70이 다된 내 삶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밑그림이니까.

알버커키 와 시인 황갑주 (I)

이경화 장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문학가로 미주문학상(92년)과 재미 시인상을 수상했고 많은 시집을 통해서 미서부지역의 사막, 광야를 노래하면서 시의 세계 속에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수없이 많이 발표해온 황갑주 선생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시인이다. 그 분은 시를 통해서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사막을 가장 많이 한국에 소개한 작가이다. 그의 재미기간 40년간에 써온 시중에서 많은 시가 사막을 대상으로 한 까닭은 아마도 그가 미국생활의 시작을 알버커키에서 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며칠 전 그분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말씀하시길 자신이 쓰고 있는 시(詩)의 뿌리는 알버커키에 있다고 했다. 알버커키는 자기를 사막의 시인이 되게 만들어준 곳이며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분이 알버커키에 오신 것은 1970년 11월경, 내가 뉴멕시코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 시절이었다. 그 분은 1970년 4월 미국 LA로 이주해 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몇 달 고민하시다가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름조차 생소한 뉴멕시코주 알버커키로 오게 된 것이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버스 차창 밖에 펼쳐지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의 황무지를 보면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실려 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음은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 곧 호흡치료사라는 미국에서의 첫 직업을 선택하여 UNM(뉴멕시코 대학)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말이 되면 우리 유학생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모

국어로 얘기를 실컷 나누며 고국의 향수를 달래곤 했다. 이때 쓰신 시중에 "주말엔"이란 시가 있다. 1971년 당시 UNM 한국 유학생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독특한 스타일의 시다. 그의 시집 "하늘이 따라와"(1973)에 발표된 시 중의 하나인데 아래에 소개한다.



[시인 황갑주선생과 1973년에 출판된 그의 시집 "하늘이 따라와"]

주말(週末)엔

만날 때마다
조국위해 일하는
보람만 외치던
노평식(盧平植)형
긴 연구생활 끝에
아주 귀국을 하고

서울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조국은 내 조국의 힘만이
누구를 의지할 나라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만나면 결국 부정부패의 이야기

이젠 조국에 갔으니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못견디다 되돌아 올지
조국에 가서 일하자
일하자던 노(盧)형!
소감이 듣고 싶지만
그후, 소식이 없고.....

이곳 뉴 멕시코주
미국서도 외지고
외로운 알버커키 시에서
교포들끼리 만나는 주말엔

향수를 덜면서
향수를 더 느끼게 한다.

이경화(李京樺)형 도 학위를 따면
어서 귀국할 생각만 하고
현천호(玄天鎬)형 도 학위를 따면
귀국할 준비밖엔 잡념이 없고
김동원(金東源)형 도 조국에서 살지
항상 조국만이 있는...

이곳 뉴 멕시코주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사이
미국서도 외지고
외로운 알버커키시에도
우리끼리 만나는 주말엔...

황갑주선생은 한국에서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대문학"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국어 교사 및 영어 교사 생활을 하다가 CCF 미국인 기관인 기독교 아동 복리회에서 번역실장, 거택구호부장으로 일하다가 도미하셨다.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낮은 봉급을 받는 호습치료사의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신 것을 보았다. 오히려 좋은 처지인 간호사 부인 못지않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친절과 열심으로 일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분이 UNM 병원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를 도와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경험을 주말에 모일 때마다 얘기하셨는데, 이런 직장생활 가운데서 쓰여진 시중에는 아래와 같은 시가 있다.

환자 할머니

퇴원한 지 오래이지만
80이 넘는
환자 할머니

녹슨 림스틱
혈어진 분갑
벗겨진 거울

캐나다에서 손님 온다고
떨리는 손으로
세수하시고
젊었을 때
거울 속
그 입술과 화장
힘이 드신지

캐나다에서 손님 온다고
몇번이고 자랑 하시며

떨리는 화장

임종의 세월은
가까워
의사도 병실을
지나만 가는데,

1970년 초반의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난했다. 서울에서도 조금만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집에는 수도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때가 많았다. 그런데 사막의 도시에 와서 물걱정 안 하고 사는 이곳 환경을 보고 가난한 조국을 생각하며 쓴 글이 다음에 소개하는 시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긴 글이다.

조국엔 한강(漢江)이 흐르는데

밤에 잠도 못 자면
새벽에 밥물만은 주면
내 살던 서울집엔
그 후 아예 밥물도 끊기고

다달이 요금 고지서는
기한을 재촉하면
수도선이라도 유지해야지... ,

비도 안 내리고
넷물도 볼 수 없는
뉴 멕시코주, 끝없는 사막

리오 그란데 강은 흐르지만

장화 신고도 건너는 사막의 강
저 유명한 리오 그란데

삼십오만의 인구
이곳 알버커키시
넓이는 서울만 할까
울창한 숲이 도시를 덮는데
일일이 수도물로 키우는 숲
강물을 쓰듯, 강물을 쓰듯
비가 오든지 말든
시민은 일년이고 십년내내
비야 오든 말든지
물걱정 비걱정이 없는데... ,

구청장께 편지 쓸까
시장께 진정서 쓸까

대통령께선 문제도 안 될는지
발전 있으니 희생은 보통일는지

애들 세수나 하고
학교 가는가
타국와서 까지
담임선생께
부끄러운 편지를 써야하네

조국엔 한강이 흐르는데
산맥 따라 골짜기마다
평야엔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

다음호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넓은 하늘과 광야를 읊은 시를 몇 편 더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위의 세 편의 시 소개로 끝을 맺는다.

재림하시는 주님

김준호 장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목을 곳이 없어서 여관방도 아닌, 말 구유에서... 그곳은 초라하고 냄새도 나고 축기도 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천민으로 오셨던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난 2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현재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또 이야기하고 한다.

연말연시! 이때에 목돈을 벌려고 많은 비즈니스가 기회를 놓칠세라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Sale 광고를 대문짝만 큼 크게 내고 캐롤을 틀고 분위기를 잡는다. 고요하고 거룩해야 할 밤이 완전히 상업화 되어버렸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이들의 장난감 선물들을 뒤지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다가 결국 아무거나 사버리게 되는 때이다. 우리도 다들 바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까 고민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이들한테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 신경을 쓰기도 했다. 또 교회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주한 와중에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잊지 않고 선물과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는 이들이 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또는 "성

탄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넨다. 한국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란 인사를 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풍습이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 추상적인 개념인 복을 받으라는 말보다, 선물을 주면서 "이것을 받으세요"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사실 "아침 식사 하셨나요?", "저녁 드셨나요"란 인사말은 어렵게 살아온 우리조상들의 생활 풍습에서 전해진 것이다. 한국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What? Did you give me some gift?"라며 반문할 것이다.

오래 전에 김석호 집사님과 남호운 집사님 댁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겼었다. 늘 정월 초하루가 되면 두 가정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세배를 드리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세뱃돈을 주었었다. 그런데 쑥스러웠던 것은 애들 부모님들도 절을 받으라고 억지를 부리곤 하였다. 남숙인 집사님은 한국 무용을 하는 사람이라 몸매도 예뻐서 그런지 세배 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기 좋았었다. 우리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떡국을 대접하고 Rose Bowl Game을 보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난다. 지금도 그 분들을 자주 생각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왔다. 정말 3명만 왔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이 분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니까 여러 명이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 중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예물들을 드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폭군 중의 하나인 헤롯왕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살까지 된 어린애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동방박사들이 헌납했던 황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섭리!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기에수를 보호했던 것이다.

우리들은 매주일 아침에 교회를 간다. 우리들이야말로 동방에서 온 "wise men, women and children"이다. 어떤 신도들은 십일조를 정성스럽게 챙겨오고 또는 주정헌금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준비해 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모두 동방의 박사들이다. 교회에 나올 만큼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이다. 별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감격과 기쁨을 나누려고 온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듯한 일인가! 요즘처럼 안타까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고뇌를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곤 한다. 옛날에 야베스가 그렇게 했고 욕이 패가망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간구하여 큰 축복을 다시 받았던 사실을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야 60장 6절에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 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몰약이 빠졌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크나큰 영광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위엄 당당하게 강림하실 것이다. 초림 때처럼 나약한 아기로 오시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예수의 수난이나 죽음은 없다. 재림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 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최후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 심판은 예수께서 초림 시에 받았던 죽음의 고통에 대해 앙갚음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넉넉하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 불신앙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는 하나님도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우리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 또 재림의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종말의 징조만 나와 있다. 최첨단 과학의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말에 관한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완전히 묵살하기도 하며 또는 불안해하기도 한다. 과학 문명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과학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이 된 것

A-1 한국식품점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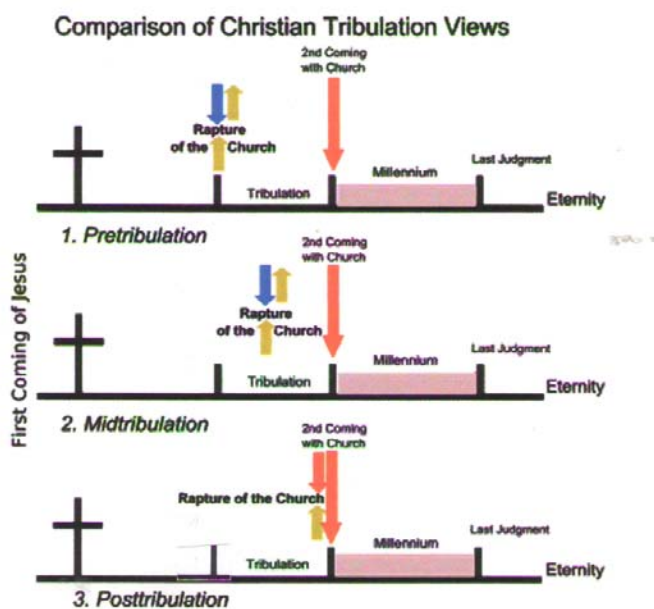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이다. 요즘에는 사람을 실험실에서 복제해 보겠다고 악을 쓰고 있지 않는가! 독자들은 십여년 전에 휴거 소동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다. 어떤 가정은 아예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우습지 않게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 내용을 악이용 했기 때문이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휴거론은 3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선 대환란 휴거(Pre-tribulation rapture)라고 하는데 교회의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설이고, 둘째가 중간 대환란 휴거(Mid-tribulation rapture)로 그 휴거가 대환란 중에 일어난다고 하는 설이다. 셋째는 후 대환란 휴거(Post-tribulation rapture)인데 휴거는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쨌든 교회의 휴거는 믿음을 잘 간직 한 사람들에게는 크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므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란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요한복음 14:3절에서 직접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의 휴거를 위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휴거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참조, 데살로니가 전서 4:13-18). 간단히 요약하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한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신비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빈정대는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더욱이 공중에서 만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휴거론을 살펴보자. 앞에 도표를 보면 빨간 화살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시한다. 그 오른쪽에는 재림 후에 있게 천년 왕국, 최후 심판, 영원한 왕국 등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는 선 대환란 휴거, 중간 대환란 휴거, 후 대환란 휴거가 모두 같다. 차이가 나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7년 대환란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느냐에 있다. 후 대환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 24 장 29-31절에 있는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를 근거한다. 한편 중간 대환란 휴거론자들은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말씀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또한 요한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재앙인 일곱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선 대환란 휴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진로 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장래 노하심에 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란 말씀에 근거한다.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의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하는 과제가 남는다. 사실 위의 해석은 인간인 우리들이 휴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잘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휴거를 행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휴거의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어느 때 휴거가 일어나든지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

지구의 종말은 비단 크리스천만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폭발,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상이변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앙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휴거(Rapture)라는 단어는 '끌어 올린다' 또는 '잡아 올린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Raptor'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위에 언급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와 연관이 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신다. 우리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Home & Deco]

꽃으로 그린 수묵화, 동양 꽃꽂이

출처: 행복이가득한집 (2010년 1월호)

기자/에디터: 황여정 / 사진: 이봉철

동양 꽃꽂이는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이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 합니다. 꽃병과 어우러지는 선의 움직임 그리고 선 밖의 여백, 이것이 삼박자가 되어 하나의 작품이 완성 되는 것이 바로 동양 꽃꽂이의 매력이지요. 새날이 시작되는 1월에 단아한 듯 화려한 우리 꽃꽂이 한 점을 바라봅니다. 순리 대로 뻗어나간 나뭇가지 하나를 차분 하게 꽃아놓은 모양새. 채우려면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화룡점정의 멋을 한껏 담아 마른 나뭇가지에 대담한 꽃 한 송이는 화룡점정과도 같다. 나뭇가지의 유려한 선을 살리고 탐스러운 꽃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병 꽃꽂이는 침봉을 이용한 수반 꽃꽂이와 달리 고수버들이나 다래 넝쿨처럼 비교적 선을 잡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왼쪽) 멋스럽게 뻗은 고수버들에 반대로 포인트를 준 작품. (오른쪽) 풍성한 섬 담쟁이에 작약 한 송이가 오롯이 조화를 이룬 작품.



여린 들꽃같이, 작은 들풀처럼 동양 꽃꽂이는 플로럴 폼 (일명 '오아시스')이 아닌 침봉에 소담스럽게 꽂는 것이 정석이다. 침봉은 플로럴 폼보다 소재를 고정하는 데 한

결 용이하며, 생명력을 길게 해줘 보름 정도 두고 볼 수 있다. (왼쪽) 노란빛 심비디움, 석화버들이 조화를 이룬 꽃꽂이. (오른쪽) 뒷박에 색감이 자연스러운 덴드로븀과 독특한 선의 석화버들을 꽂은 작품.



꽃보다 향기로운 여백을 담아 여러 종류의 꽃을 풍성하게 꽂는 것이 서양 꽃꽂이라면, 동양 꽃꽂이는 어딘가 허전해 보이게 꽂는다. 여백을 많이 둘수록 보는 이에게 긴 여운을 남긴다. 소재를 꽃아놓고 가지치기하면서 여백을미를 연출할 수 있다. (왼쪽) 작약과 산동백이 어우러진 작품.

의외의 것이 만나 빚어낸 미학 동양 꽃꽂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들이 우연처럼 만나 필연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강렬한 색의 꽃과 소박한 소재, 한국의 웅기와 이국적인 꽃 등 이질적인 것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오른쪽) 수반에 심비디움과 망개 열매를 꽂은 작품.



청청한 소나무, 선비 정신의 표상 사시사철 푸르고 비바람에도 변함없는 소나무는 직립형의 동양 꽃꽂이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재다. 간결한 듯 강렬하게 꽂혀 있는 소나무에서 선비의 청빈한 삶과 기개가 느껴진다. (왼쪽) 소나무와 동백을 꽂은 꽃꽂이.

플로리스트 이숙진 씨에게 배우는 동양 꽃꽂이

35년 전 동양 꽃꽂이의 명장 고하수 선생에게 사사한 숙진 플라워 이숙진 대표는 동양 꽃꽂이를 할 때 다음 몇 가지만 기억하면 한결 쉽다고 말한다.

❖물 올리는 기초다 꽃 시장에서 구입한 꽃을 집으로 가져와 바로 꽂기보다는 물 올리기를 충분히 해준 후 꽃

을 꽃는 것이 좋다. 물 올리기란 절화된 꽃의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줄기를 물속에 담근 채 비스듬하게 자른 후 가지런히 모아 신문지에 돌돌 감아 물을 채운 양동이에 담가둔다. 신문지로 감아놓는 것은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꽃을 꽃을 때도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 꽃아야 화기 안에서 물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3주지를 기억하라** 주지는 작품의 골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꽃, 나뭇가지를 가리킨다. 꽃꽂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은 3주지. 이는 꽃을 꽃을 때 세 송이 꽃(또는 가지)을 꽃아 먼저 틀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제1주지, 이를 따르는 제2주지, 여기에 조화를 이루는 제3주지를 구성해보자. 이 3주지가 삼각형을 이루면 전체적인 모양이 가장 균형 있게 잡힌 것이다.

❖**꽃 한 송이에도 얼굴이 있다** 꽃을 360도 돌려봤을 때 가장 소담하고 예쁘게 핀 부분이 꽃의 얼굴이다. 꽃을 꽃을 때 꽃의 얼굴이 똑바로 정면을 향하게 꽃는 것이 서양식이라면, 동양 꽃꽂이에서는 꽃끼리 서로 살짝 바라보게 꽃는다. 꽃 한 송이를 꽃을 때도 정면을 향해 꽃기보다는 수줍은 듯 약간 틀어 꽃을 것.

❖**침봉을 활용하자** 플로럴 폼을 사용할 때는 꽃을 꽃기 전에 어떻게 꽃을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꽃을 꽃다가 빼고 다시 꽃다 보면 뺨 자리에 틈이 생겨 플로럴 폼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침봉은 반영구적이다. 관리만 잘하면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다. 꽃을 꽃으려는 모양에 따라 동그란 것, 네모난 것 등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동양 꽃꽂이에 필요한 도구들

❖**화기만 잘 선택해도 반은**

성공이다 동양 꽃꽂이에서 꽃병은 꽃만큼이나 중요하다. 여러 송이가 아닌 한두 송이를 꽃을 때는 더욱 그렇다. 백자, 청자, 질그릇, 오지그릇은 물론 넓적한 수반까지 우리네 도자기는 어떤 꽃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세련된 미를 풍기고 싶을 때는 청자를, 단아한 미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백자를 용해보자.

2010년 1월 뉴멕시코 목회자 정기모임 (장소: 한미 침례교회)

뉴멕시코 정기 목회자 모임이 1월 18일 윤성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한미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현용규 목사님께서 잠언 4:23절을 중심으로 설교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증오 받는 도시 중에 3위가 한국 서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구소련식의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들, 형편없이 무질서하게 뻗은 도로, 환경 오염, 마음과 영혼이 없는 도시, 술이 없이는 못사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과 영혼이 없는 도시라고 지적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옛날에는 구소련이 술을 많이 먹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이제는 곳곳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걸려 있는 기독교 국가라는 한국이 술 많이 먹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본문 말씀을 붙잡았다. 본문은 마음을 지켜야 영혼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7:51절에 의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특징이 성령을 거역하고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아 의인들이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죽인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귀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찢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앓은뱅이가 소개된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겼다. 소망으로 인해 이 사람은 말씀에 마음을 눈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다. 이 루스드라의 앓은뱅이는 그 말씀으로 치유의 기적까지 체험하였다. 둘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양적으로 보기보다는 질적으로 보아야 한다. 몇 사람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빌 4: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므로 영혼에 생명을 얻는다. 임금이 지나가다보니 도토리나무가 죽어가고 있

다. 임금이 그 이유를 물으니 도토리나무 앞 앞에 전나무는 쪽쪽 뿔어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가 싶어 죽고 싶다는 것이다. 전나무 앞에 가보니 이 또한 죽을상이다. 물으니 앞에 포도나무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맺는데 자신은 못하니 죽고 싶다 하더라. 포도나무에게 가보았더니 앞에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지 못하니 죽고 싶다 하더라. 그러나 제비꽃 앞에 가보니 그는 행복해하더라. 물으니 꽃 하나라도 피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임금님께서도 나를 보고 좋아 하시지 않은가? 그러니 행복하다는 것이다. 자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임금이 깨달았다. 우리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족할 줄 모르고 비교 의식이나 경쟁심에 오염되어 있다면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진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올 한해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 영혼에 생명을 얻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화평을 도모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

이 날 모인 분들은 신경일 목사님 내외, 현용규 목사님, 최치규 목사님 내외, 윤성렬 목사님 내외, 김기천 목사님, 그리고 전종철 목사님과 권지현 사모님, 아들 전하진 분이 새로 참석하셨습니다.

경건회를 마친 뒤, 한인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팬과 식당에서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김두남 회장의 감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해에도 각 교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의 계획이나 행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글학교에 각 교회의 광고와 적극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동석한 문상귀 지역협회장님 또한 한인들이 미국 행사들에는 자녀들을 열심히 참여시키면서 한국의 전통과 얼을 배우는 일에는 소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각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자녀들의 참여도가 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연수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높여 놓았는데, 지역 한인 부모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우려의 현실입니다.

한인회에서 매주 목요일 어버이회 회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목사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교회 여성교회가 일 년에 두 번 정도 어버이회 회원분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인회에서는 주소록을 포함하여 뉴멕시코 주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각 교회에서 한 페이지씩 할당받아 소개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각 교회의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후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60주년 기념으로 올 여름에 참전용사 가족들을 초청하고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추석을 맞이하며 김치축제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송년회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교역자 모임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김기홍 장로 초청 간증 집회 2월 22일(월요일), 한인회관 성결교회 23일(화요일), 침례교회 24일(수요일), 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시 통역자는 감리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모임은 2월 15일 오후 4시이며, 장소는 감리교회에서 모입니다.

장군 장로의 꿈을 실현한 전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김기홍 장로 초청 간증집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화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 하리로다" (시편 108:1)



김기홍/장로

✪ 주요약력 ✪

- 13세 예수영접(1954)
- 해군 사관학교 18기입교(1960)
- 해병 소위 임관(1964)
- 월남전 참전(해병 청룡부대) (1966.1~68.1)
- 월남 파병중 작전 지휘(중위)
- 전 중대원 일계급 특진(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장조) 중무공훈장, 월남명승무공훈장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
- 상학, 출전, 침투무장공비 소탕작전(1968.11~12)
- 진해 거북도 침투 간첩 수목탄으로 직접 사살(1970.10)
- 해군 본부 해병참모부 전력 담당관(중령)(1984.8~86.1)
-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준장)(1988.1~90.1)
- 해병 제2훈련단장(준장)(1990.1~91.1)
- 해병대 부사령관(소장)(1991.1~93.12)
- 장로참임(1991)
- 연세대 연립신학대학원 석사과정졸업(1998.8)
- 대전 육원대학교 교수(1998.3~현재)

2월22일(월) 저녁 7:30 성결교회
2월23일(화) 저녁 7:30 침례교회
2월24일(수) 저녁 7:30 감리교회
연락처: (505) 331-9584, 803-7716

[생활상식]

세탁물 건조기 사용시 절약법

햇빛과 건조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약 방법이지만, 부득이 하게 세탁물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전기 건조기 보다는 개스 건조기가 비용이 절약 됩니다. 미국 개스 협회에 의하면, 전기 건조기 1회 사용 비용은 거의 개스 건조기 3회 사용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스 건조기 사용 시 에너지를 더욱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물을 모아 두었다가 한번에 같이 돌립니다. 단, 여행가방을 싸는 것처럼 너무 많은 양을 넣지는 말아야

합니다.

◆얇은 천으로 된 옷과 두꺼운 옷감의 옷이나 수건류는 각기 따로 말립니다. (면으로 된 옷이나 목욕 타월 등은 말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 보푸라기 등의 먼지를 거르는 망은 매번 건조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먼지를 제거하여 주면 건조기의 공기 소통이 잘 되어 세탁물 건조를 훨씬 빠르게 해줍니다. 이 먼지를 거르는 망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을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번 이상 건조기를 연달아 사용하면 잔열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사용이 절약됩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젖은 옷을 첨가하여 집어 넣지 마십시오.

◆건조기의 배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실 보푸라기나 먼지 등이 배기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살펴봅니다.

◆재구입시는 습도 감지 기능이 있는 건조기를 사도록 합니다. 습도 감지 기능이 있는 건조기는 세탁물이 건조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뿐 아니라 세탁물이 줄고 상하는 것을 감소시켜 주며 지나치게 건조시켜서 생기게 되는 정전기 현상도 덜어 줍니다.

◆가능하면 건조기는 난방이 되는 곳에 놓아두도록 합니다. 출거나 축축한 지하실이나 난방이 안 되는 차고에 넣어 두면 건조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KOREAN B.B.Q HOUS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알아두면 도움 되는 살림의 지혜

◆세탁을 잘못해 줄어든 스웨터는 암모니아를 조금 떨어뜨린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잡아당겨 늘려주면 된다.

◆유리잔에 뜨거운 커피를 따를 때 잔 속에 금속 티스푼을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열로 금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야채를 물에 적셔 신문지로 말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2배쯤 신선하다. 잉크가 신경 쓰인다면 종이 타월로 먼저 만든다.

◆콩자반을 만들 때 콩과 뜨거운 물을 1:3의 비율로 하루 정도 보온병에 넣어두면 콩의 70%가 저절로 익어 시간과 가스비가 절약된다.

◆카펫을 청소할 때 먼저 카펫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먼지를 흡수해 한결 청소가 잘 된다.

◆알루미늄 냄비가 거무스름해졌을 땐 사과껍질을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이면 거무스름한 것이 많이 없어진다.

◆화분 식물이 시들시들할 땐 마늘 한 통을 으깨 5컵 정도의 물에 타 조금씩 뿌려주면 식물이 원기를 회복해 잘 자란다.

◆식용유를 바닥에 엮질렀을 때 밀가루를 뿌려주면 밀가루가 기름을 흡수해 완벽하게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다.

출처: <http://danmee.chosun.com/livingpoint>

[행복한 식탁]

우리 집 설날 별미

완자 떡국

재료 찹쌀가루 160g, 쌀가루 80g, 소금 1/2작은술, 뜨거운 물 65g, 다진 쇠고기 100g, 마른 표고버섯 다진 것 3큰술, 다진 파 3큰술, 다진 청양고추·생강즙·참기름 1작은술씩, 소금·후춧가루·청주 약간씩, 감자 전분 2큰술, 떡국떡 적당량

국물 재료 육수 7컵, 국간장 1큰술, 소금 1/2작은술, 후춧가루·대파·마늘 약간씩

만들기

- 1 찹쌀가루와 쌀가루,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 다음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치대어 반죽한다.
- 2 다진 쇠고기는 생강즙,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를 조금씩 넣어 밀간한 다음 다진 표고버섯, 파, 청양고추를 넣어 버무린다. 잘 섞이면 한 입 크기의 완자를 빚어 랍을 끈 접시에 올린다.
- 3 ①의 반죽을 12g씩 떼어 둥글게 빚은 다음 손가락으로 눌러 ②의 완자소를 넣고 오므린다. 둥글게 매만진 다음 전분 가루 위에서 한번 굴린다.
- 4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인다. 끓는 물에 ③의 완자를 넣고 젓가락으로 돌리면서 삶는다. 속까지 잘

익으면 건져서 얼음물에 담가 완전히 식힌다(이 과정까지 한 후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5 냄비에 분량의 국물 재료를 모두 넣고 끓이다가 떡과 ④의 완자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명절 준비의 시작, 김치부터 새로 담자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명절, 제사, 생일 등 중요한 날을 앞두고 김치부터 새로 담갔다. 정성으로 차린 밥상은 새로 담근 김치와 갓 지은 밥이 기본이며 그다음에 특별한 요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특히 설날은 작년에 담근 김장이 시어질 무렵이므로 김치를 새로 담그는 것이 좋다. 설날 김치의 주인공은 개운하고 칼칼한 맛을 내는 나박김치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설 상차림에 시원한 국물과 아삭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나박김치가 빠지면 왠지 허전할 정도. 나박김치와 함께 요리가 최경숙 씨가 매년 설날 빼놓지 않고 담그는 별미 김치는 콩나물 겨자 김치다. 데친 콩나물에 채 썬 무와 다시마, 미나리를 넣어 고춧가루와 겨자로 맛을 내 아삭아삭한 채소를 씹는 맛과 칼칼한 매운 맛이 입맛을 당긴다. 대부분의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며, 각종 전과 함께 상에 올리면 막걸리 등의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나박김치

재료 무 250g, 배추 500g, 배 1/4개, 오이 150g, 미나리 50g, 쪽파 70g, 풋마늘·풋고추·마늘 20g씩, 홍고추 2개, 생강 10g, 소금 30g, 고춧가루 15g, 물 2컵

김치 국물 재료 생수 1/5ℓ, 감미료 1/2큰술, 소금 1큰술

만들기

1 무는 가로 3cm, 세로 2.5cm 크기로 나박나박 썬다. 배추는 잎을 길이로 반 갈라 3cm 폭으로 썬다. 배와 오이는 무보다 조금 작게 나박나박 썬다.

2 미나리는 줄기만 다듬어 3~5cm 길이로 썬다. 쪽파와 풋마늘은 흐르는 물에 씻어 3~5cm 길이로 썬다. 풋고추와 홍고추는 채 썰고, 마늘과



생강은 얇게 편으로 썰어 면주머니에 넣는다. 큰 볼에 손질한 무, 배추, 오이, 미나리, 쪽파, 풋마늘, 풋고추, 홍고추, 생강편과 마늘편을 넣은 주머니를 담고 소금을 뿌려 20분 정도 절인다.

3 고춧가루에 분량의 물을 부어 불린 다음, 면주머니에 넣어 주물러 국물만 꼭 짜서 ②의 절인 채소에 넣고 섞어 고루 물들인다.

4 생수에 ③에서 짜고 남은 고춧가루 주머니를 넣고 손으로 비벼 짜며 남은 고춧물을 마저 우려낸 뒤 감미료와 소금을 넣어 섞는다.

5 ③의 채소에 배를 넣고 ④의 김치 국물을 붓는다.

콩나물 겨자 김치

재료 미나리 · 콩나물 300g씩, 무 400g, 물 1/2컵, 소금 11/2큰술, 미역 줄기(또는 생다시마) 100g

양념 재료 고춧가루 31/2큰술, 다진 마늘 · 국간장 1큰술씩, 겨자 2작은술, 생강 · 참기름 1작은술씩, 젓갈 1 1/2큰술, 다진 파 · 통깨 2큰술씩

만들기

1 미나리는 다듬어서 5~6cm 길이로 자른 후 끓는 소금물에 넣고 살짝 데쳐 물기를 꼭 짠다.

2 콩나물은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고 끓는 소금물에 넣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데친 후 망에 받쳐서 물기를 뺀다.

3 무는 가늘게 채 썰어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절인 후 물기를 꼭 짠다. 미역 줄기도 미나리와 같은 크기로 썬다.

4 넓은 볼에 ③의 무와 분량의 양념 재료 중 고춧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다. 고춧가루 색이 골고루 들면 나머지 양념 재료를 모두 넣고 섞은 다음 미나리, 콩나물, 미역 줄기를 넣고 버무린다.



명절 상 요령 있게 차리는 법

숨씨 좋은 주부는 가족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지혜로운 주부는 일을 쉽게 한다. 해마다 설날이면 제사와 손님맞이, 친척과 가족을 챙기느라 누구보다 분주한 주부를 위한 조언. 이달 ‘오늘은 뭘 먹지?’에서는 ‘방배동 선생’ ‘가정 요리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최경숙 씨가 설날 별미를 소개합니다. 평소 강의를 할 때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재밌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레시피는 정교하면서도 간편해 초보도 고수처럼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절 음식은 손님이 몇 명일지, 언제 식사할지 가능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만들어두어도 변하지 않는 메뉴로 준비하고, 다른 집과 차별화한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의 조언이 담긴 일곱 가지 별미로 올 설날을 더욱 맛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먹는 명절 음식에 변화를 주자 설날 필수 메뉴는 떡국, 갈비찜, 잡채 등이다. 명절 내내 이 음식을 먹는데, 두 차례 이상 같은 메뉴가 상에 오르면 차리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 모두 괴롭다. 특히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일수록 쉽게 물리므로 되도록 깔끔하게 조리하고, 밥상에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매해 명절 갈비찜을 했다면 이번 설에는 갈비보다 기름기가 적고 자주 접하지 않는 꼬리찜을, 일반 한식 잡채 대신 중국식 소스로 볶아 색다른 맛을 내는 녹두 당면 잡채를 준비해보자. 녹두 당면은 칼로리가 일반 당면의 절반 정도이며, 기름 대신 중국 소스를 넣어 볶기 때문에 전통 잡채보다 뒷맛이 깔끔하다.

여러 번 먹게 되는 떡국도 끼니마다 다르게 내는 것이 좋는데, 떡국을 메인으로 먹을 때만 고기 육수로 끓이고, 고기 요리와 함께 먹을 때는 다시마나 멸치 국물로 끓이면 칼로리를 낮추면서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또

만두 대신 고기소를 넣어 빚은 완자를 냉동해두었다가 떡국 끓일 때 넣으면 다른 집과 차별화한 떡국을 완성할 수 있다. 색다른 요리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함께 먹는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자극적인 요리, 개성이 강한 일품요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통을 지키기 위한 날인 명절에 너무 과한 변화를 주면 애써 준비한 음식이 가족에게 외면받거나 다른 음식이 초라해 보이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작은 그릇에 모자란 듯 담자 명절 음식 뒤처리는 골칫거리다. 먹고 남은 음식을 다음 끼니에 그대로 낼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죄짓는 기분이다. 게다가 여러 번 대운 음식은 마르거나 색이 변해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작은 그릇에 약간 모자란 듯 담아 매끼 상에 올라간 음식은 깨끗하게 비우도록 양을 조절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반찬이 있더라도 한 번에 모두 내지 말고 매번 바꿔가면서 내자. 한 끼에 메인 요리 두 가지와 김치 한두 가지, 탕이나 떡국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음식 가짓수를 늘리는 대신 따뜻한 음식은 그릇까지 예열해두었다가 뜨겁게 내고, 찬 음식은 살얼음을 동동 띄워 시원하게 내는 데 정성을 들이면 상차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주부가 편해야 명절이 즐겁다. 식사 후 밥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다시 밥상 차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짜증이 나면서 그 마음이 밥상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다. 과일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 딸기나 귤은 씻어두고 배와 감도 깎아서 밀폐 용기에 담은 뒤 냉장고에 넣어둔다. 개인 접시도 한쪽에 꺼내두면 후식 상차림이 한결 수월하고, 다른 가족에게 부탁해도 미안하지 않다. 과일의 신선도가 걱정된다면 후숙 과일이라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으면서 반으로 썬 잘라 손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키위를 준비한다.

안주나 간식도 갖춰놓자 ‘세배 드리고 오면서 떡국과 과일 모두 먹고 왔다’는 손님에게는 색다른 안주가 놓인 주안상이나 조금 특별한 간식과 차를 대접하면 주부의 센스가 돋보인다. 대파의 흰 부분을 우유, 치즈와 함께 오븐에 구운 대파 치즈 구이는 손쉽게 만들 수 있을뿐더러 맛이 색다른 것은 물론 영양도 만점이다. <본초강목>에서는 대파를 대표적인 강장 식품으로 소개하는데, 겨울철 체력이 약해진 사람이 대파의 흰 부분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고 쓰여 있다. 대파의 단맛과 치즈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진 대파 치즈 구이는 와인 안주로 잘 어울린다. 술이 아닌 차를 대접하거나, 어린이 손님을 위한 간식으로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피넛볼을 추천한다. 설탕 시럽에 생크림과 견과류를 넣어 버무리는데 식어도 딱딱하게 굳지 않아 먹기 편하다. 만들기도 간편하므로 넉넉하게 만들어두었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세배 온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어도 좋다.

[출처] 행복이 가득한 집 (2010년 2월호)

기자/에디터: 이화선 / 사진: 양재준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63-6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W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타이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장로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6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 27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갤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8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8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렌트/부동산

구인/구직

도와주세요

정보마당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Grand Opening!

Pho MeatBall 월남국수

Vietnamese Beef Noodle House

Dine In - Carry Out

6205 B Montgomery Blvd NE
505-872-2311
Corner of San Pedro / Montgomery

Large	medium	Small
\$5.75	\$5.25	\$4.75



15% Off
Entire Purchase
Expires 2/30/10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